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6, Vol. 20, No. 3, 67~80

혈액형이 사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 :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연애태도 특성

주현덕 박세니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혈액형과 성격적 특성 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이전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A. Lee의 사랑의 유형론을 척도화한 Hendrick과 Hendrick의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 Scale)"와 연애태도를 알아보는 연인평가 척도인 MALPS를 사용하여 496명을 대상으로 혈액형별 유형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의 사랑의 유형과, 애인으로서의 태도 (또는 평가) 기준에서 혈액형은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혈액형별 궁합이나 연애스타일처럼 애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혈액형별 특성에 의한 설명의 타당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과 연애경험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의 일부 요인에서 혈액형별 집단차를 중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혈액형 유형론을 믿게 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혈액형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별과 연애 경험 등의 변수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 혈액형, 사랑유형, 연애태도, MALPS, 성격 유형, 유사 과학적 성격 유형학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분시켜 주는 독특성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며, 사람의 활동을 지시하고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므로(Hjelle & Ziegler, 2002, p. 20-21.), 성격적 특성에 근거하여 자신을 설명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격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주 많아서, 누군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격의 유형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 성격척도보다는 혈액형이나 별자리, 사주 등에 근거한 성격 유형학이 훨씬 일반화 되어있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런 유사 과학적인 성격 유형학이 자신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고 믿고 있다(조소현, 서은국, 노연정, 2005).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 "저 사람 왜 저러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 대답으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원리와 개념을 설명하게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원리나 개념보다는 기억하고 구분하기 더 쉬운 유사 과학적 유형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실생활에서의 유사 과학적 성격 유형학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조소현 등, 2005). 이런 유형론 중

주현덕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박세니는 교육학과에 소속되어 있음.
교신저자 : 주현덕,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유억겸 기념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전화 : 02)
E-mail : iampiter@empal.com

가장 대표적인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의 경우도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조소현 등(2005)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다.

혈액형 유형론은 성격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각 혈액형별 성격적 특성을 근거로 혈액형별 직업 적성, 경영 스타일, 옷 입기, 선물하기, 음식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확대되어왔다. 혈액형들 간의 "궁합(matching or mating)"에 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사람들 간의 조화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혈액형은 선천적이므로, 특정의 혈액형이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준다는 생각이 사실이라면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는 사랑의 유형이나 연애태도 또한 혈액형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사랑의 유형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을 반영하는 것이며(Sternberg, 1998),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의 특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기(Pines, 1999) 때문이다. 유사 과학 혈액형별 유형론은 집단 간의 성격적 특성의 차이를 부각시켜왔다.

이처럼 기대와 수요가 높아진 이성간의 혈액형별 조화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심리학계가 진행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왔다. 그리고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이나 애정론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생각하였다. 혈액형별 성격유형론에 기반을 둔 애정유형론은 성별이나 연애경험과 같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연애태도나 사랑유형이 달라져 보일 수 있음에도 그런 차이가 오직 혈액형에 의한 차이로만 설명되었을 수 있으며, 성별과 연애경험 등이 혈액형별 차이를 중재할 수 있으므로, 이런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혈액형과 유사 과학적 유형론

성격은 대략 40% 정도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Costa & McCrae, 1992; Plomin & Caspi, 1999; Rogers & Glendon, 2003). 따라서 성격 특성의 차이를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혈액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주 근거가 있어 보인다(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소현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형은 그 자체가 성격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지 혈액형별 고정관념의 결과로 사람들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다를 거라는 생각이 다르다고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Aronson, 2004). 혈액형별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가 모두 일관적으로 그 차이를 지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혈액형별 성격특성의 차이가 지지되지 않는 경향이 더 많다(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

그럼에도 과학적인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혈액형 유형론에 근거한 혈액형별 궁합이나 연애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형론이 어떤 과학적, 심리학적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경기도 부천 지역의 영어 학원 수강생 173명(평균연령 22.1세)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 과학적 유형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런 경향은 더 많은 사람을(N=6064)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비슷하다(조소현 등, 2005).

혈액형 유형론에 근거한 연애유형론의 타당성을 밝히는 일은 심리학이 일반인들의 연애에서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심리학이 유사 과학 유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 있고, 성격에 비해 사랑유형 또는 연애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 과학적 유형론은 분명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리학의 그 어떤 척도보다 익숙한 것이 되어 있고, 또한 사람들의 판단과 신념의 근거가 되고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형론을 경시하는 관점으로 이에 거리를 두려고 할 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이 읽는 잡지를 심리학 척도들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이미 채우고 있는 유사 유형론의 결과물들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와 타당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며 누군가 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 혈액형별로 사랑유형과 연애 태도(연인 평가)에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혈액형별 유형학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1. 유사 과학 사랑유형론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N*=173)와 신뢰 비율

	인 지 도		신뢰 비율[a]		
	알고 있음	알지 못함	일리 있음	일리 없음	모르겠음
사주(궁합)	95.1%	4.9%	52.6%	32.4%	15.1%
별자리 애정운	91.3%	8.7%	43.9%	24.9%	32.2%
혈액형 궁합	86.7%	13.3%	50.1%	30.8%	19.2%
심리학 애정척도	16.2%	83.8%	83.9%	6.9%	9.1%
기타(각종 점 등)	24.3%	75.7%	33.8%	40.4%	15.7%

a.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의 비율

혈액형 유형론에 대한 이전의 연구와 성격특징에 대한 믿음

사람마다의 차이에 생물학적인 내력(biological antecedents)이 있다는 주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 혈액형별과 지능, 정서, 성격, 면역성, 성격 장애 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지속되어져 왔는데, 이들 변수에 따른 혈액형별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Rogers & Glendon, 2003). 동아시아의 경우 혈액형별 성격론은 일본인 학자 Furukawa(1927; 1930)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O형과 B형이 A형이나 AB형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며(Furukawa, 1927), O형은 보다 긍정적이고, 사교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졌고, A형은 보다 얌전하고 걱정이 많으며 삼가는 성격을 가졌으며, B형은 솔직하고 활달하며, 급한 성격을 가진 반면, AB형은 모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Furukawa, 1930; Rogers & Glendon, 2003).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혈액형별 성격론은 대개 Furukawa의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발전되어온 것이며, 이에 관한 많은 대중 서적이 발간되어왔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혈액형별 성격유형학이 더 많이 믿어지게 된 것은 서양의 경우에는 혈액형별 인구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A형과 O형에 비해 B형과 AB형이 아주 적은 불균형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양의 경우 자신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혈액형별 성격론에 대한 선호가 생기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조소현 등, 2005).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서 그 어떤 문화권보다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데 혈액형별 성격유형학이 대인관계에서 유용한 간략하면서 효율적인 이해를 제공해줘 왔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조소현, 2005; Suh, 2002).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혈액형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소현 등(2005)의 연구를 빼면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액형과 성격의 연관성이 검증된 적이 없고, 그 외의 다른 개인적 변인들과 혈액형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도 거의 없다.

불안과 신경증이나 외향성 등에서 혈액형에 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도 있다(Cattell et al., 1980; Eysenck, 1973; 1982).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중 대표적인 Cramer와 Imaike(2002), Rogers와 Glendon(2003) 그리고 조소현 등(2005)의 연구에서는 모두 가장 잘 알려진 성격 요인 모형인 Big 5 모델을 사용하여,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및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혈액형과 연관하여 검사한 결과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소현 등(2005)의 연구에서는, 혈액형 자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자신의 특성을 측정하게 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것으로 저자들은 설명한다. 조소현 등(2005)은 그 과학적인 기반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유사 과학적 성격 유형론이 사람들의 판단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유로 확인 편파(Confirmation bias)와 바넘 효과(Banum effect)를 제시한다. 확인편파란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회피하는 편향성을 의미하며, 바넘 효과란 사람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꼭 자신에게만 맞는 것

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한다(Aronson, 2004).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과 출판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 혈액형에 의한 성격 특성 정보가 사람들의 자기 성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자기충족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서양 모두에서 성격적 특징이 혈액형 같은 생물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Cramer & Imaike, 2002) 생각이 뿌리 깊은 것은 다르게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쉽게 납득할 만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되는 특징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회적 여건을 찾고자 한다(Setterlund & Niedenthal, 1993).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혈액형이나 태어난 시간(사주나 별자리 점)이 성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휴리스틱이라고(Tvertsky & Kahneman, 1982) 할 수 있다. 혈액형이 네 가지로 간결하게 나눠지는 것 또한 사람들의 이런 가용성이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조건이 된다. 혈액형은 사주나 별자리에 비해 더 적은 구분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형론을 기억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해보기 쉬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분포에서도 서양에선 혈액형의 분포가 A형과 O형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AB형의 수가 다소 적을 뿐 나머지 세 혈액형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여 전체 인구가 골고루 나눠진다는 점이 혈액형에 의한 성격론을 지지하게 해 주는 심리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혈액형 유형론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의 역할을 한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통제감과 예측가능성의 느낌을 주게 되므로(Setterlund & Niedenthal, 1993),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론에 의존하게 된다(조소현 등, 2005).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검증해보기 보다 이에 부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White, Brockett, & Overstreet, 1993), 이미 널리 알려진 혈액형의 성격 유형론은 확인 편파(confirmation bias)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기존의 설명과 평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다른 타당한 수단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보통 사람들이 알거나 활용하기 쉬운 잘 알려진 대안적인 유형론도 없기 때문에 혈액형별 유형론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혈액형별 사랑유형론과 연애태도

사람들의 애정에 있어서의 선택과 행동, 태도와 인식은 그 사람의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며(홍대식, 2002; Sternberg, 1998) 사람마다 다른 색깔과 양상으로 나타난다. 성격이 혈액형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반영하는 것임으로 혈액형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혈액형별 성격유형론만큼이나 혈액형별 연애태도 및 사랑유형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대중매체는 물론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다. 여성용 잡지에는 거의 빠짐없이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고,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혈액형별 애정론을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유료 및 무료)와 수많은 공간(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의 혈액형별 애정론에 따르면 소심한 성격으로 대표되는 A형은(조소현 등, 2005) 연애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대신 한 대상을 천천히 오래 사랑하며, 현실적인 연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A형은 Stroge와 Pragma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MALPS에서의 포용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형은 자유분방하고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에서(조소현 등, 2005) 애정유형이 보다 Ludus적이고, 연애태도에서도 보다 개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O형은 로맨스를 중시하고, 연애 상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Eros 점수가 높고, 연애태도의 집중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된다. AB형은 우정에서 시작되는 연애방식을 가졌으며(Stroge), 정열적인 면이 약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AB형도 A형과 마찬가지로 사랑에서 이해타산적인 편이어서 다른 혈액형보다 Pragma가 높고 Eros 점수는 낮은 것으로 가정된다.

이런 혈액형별 연애론 또는 궁합에 관한 내용은 매체별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서로 모순적인 경우도 흔하다.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주로 "어떤 면이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흔하다."는 설명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혈액형 집단별로 애정 유형과 연애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이들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유형과 연애 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혈액형 이외의 변인들

혈액형과 관련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요인이 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성차이다(홍대식, 2002)." 많은 연구들에서 양성이 서로 다른 용어로 자신의 사랑을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Dion & Dion, 1973; Hendrick, Hendrick, Foote & Slapion-Foote, 1984; Hendrick & Hendrick, 1988). 대표적으로 호감과 사랑(Dion & Dion, 1975; Rubin, 1970), 사랑유형(홍대식, 1996; Feeney & Noller, 1990; Hendrick & Hendrick, 1986; Shaver, 1998; Lee, 1988; Sternberg, 1987), 사랑의 느낌, 사랑에 대한 지각 등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검토되었다(홍대식, 2002).

남녀관계 또는 애정관계에서 성차에 관한 여러 논의는 성차를 중시하는 진화심리학적, 정신역동적 관점과 남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이론의 양축으로 나눌 수 있다(Pines, 1998). 진화심리학에서는 이성상대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로서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가장 중시하며, 이런 선호의 차이가 여러 문화에서 보편적일뿐 아니라,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한다(홍대식, 1998; 2002; Barash & Lipton, 2001; Buss & Barnes, 1986; Buss, 1994; 2000; Diamond, 1997; Dion & Dion, 1973; 1975; Feingold, 1992; Fisher, 1994; 1999; 2004; Greitemeyer, 2005; Miller, 2000; Pines, 1999; Townsend, 1998). 반면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연애관계에서 남녀의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DeLamater & Hyde, 1998; Kenrick et al., 1993; Pines, 1998). 남녀는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서로 다르지 않으며(Tavris, 1992),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보다 안정적이고, 관계에 충실하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관계를 더 추구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한다(Cochran & Peplau, 1985; Pines, 1998). 연애태도에서 양성은 모두 우호적인 태도를 선호하며, 서로 유사한 태도를 가질 때 연애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주현덕, 장근영, 2006).

성별에 따라 혈액형에 의한 성격적 특성의 차이가 다르다면, 성별은 혈액형별 차이에 대한 중재변수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는 이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홍대식, 1996; Dion & Dion, 1975; Hendrick & Hendrick, 1986), 혈액형별 사랑유형이나 연애태도의 양상은 보고된 바가 없다. 성별과 관련하여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성별 외에도 연애 경험의 여부는 연애태도와 사랑유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경험을 통해 실체를 알아가는 되는 것은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연애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차이가 연애경험이 아닌 다른 요인, 즉 혈액형에 의한 차이로 귀인 되거나 연애경험에 따라서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연애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연구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련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혈액형 유형론은 성격적 특성에 따른 혈액형간의 조화를 설명하는 것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성간의 적합성을 예측하는 혈액형별 궁합이나 점 등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관심을 채우기 위해 다시 더 많은 혈액형별 유형론 정보가 각종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 사람들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혈액형별 애정론이 사람들의 특성을 변별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는 데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조소현 등, 2005; Cramer & Imaike, 2002; Rogers & Glendon, 2003)에서 더 나아가, 혈액형과 사랑유형 그리고 연애태도(연인평가) 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혈액형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의 결정요인이 된다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는 혈액형별 집단차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집단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아님에도 혈액형이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의 특성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었는가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요인들에 의한 차이가 혈액형에 의한 차이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별과 연애경험과 같은 변인은 연애태도와 사랑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이며, 혈액형별 차이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이 연구는 비록 간단한 단일 연구이지만, 유사 과학적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을 심리학이 검증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연 구

연구 대상

Y 대학교의 심리학 과목 수강 학생 323명과 경기도 부천의 영어 학원 수강생 173명 등, 총 496명이 대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성이 232명(46.7%)이고 여성이 264명(53.3%)이었고 평균 연령은 20.9세였다. 혈액형은 A형이 162명(32.8%), B형이 153명(31.8%), O형이 134명(27.2%)이었고 AB형이 44명(9.1%)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적인 비율(A형 : 34%, B형 : 27%, O형 : 28%, AB형 : 11%)과 비슷하였다[1].

측정 도구와 절차

혈액형과 사랑유형 및 연애태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랑의 유형론에서 가장 유명한 Lee(1973; 1988)의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s Scale)"와, 연애태도 및 연인 평가 척도인 "연인으로서의 나 척도(MALPS)"를(주현덕, 2006)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다.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 Scale)

Lee(1973; 1988)의 사랑의 유형론을 Hendrick과 Hendrick(1986)이 "사랑의 유형 척도(Love Styles Scale)"로 만든 것을 번역하여 사용하되 번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항을 각 유형별로 하나씩 줄인 총 36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매우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 이 "사랑의 유형 척도"는 사랑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3개의 일차적인 유형과 이들 일차적인 유형을 다시 조합한 3개의 이차적 유형으로 되어 있다. 일차적 유형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Eros), 밀고 당기는 식의 게임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루두스(Ludus)와 동반자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Stroge)가 속한다. 이차적 유형에는 강박적이고 몰입하는 마니아(Mania), 상대를 우선시 하는 아가페(Agape)와 실용적인 적합성을 고려하는 프래그마(Pragma)가 있다. 이 척도의 전체적인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0이고, 각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2에서 .84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0에서 .78의 값을 갖는다(Tzeng, 1992).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 : Me (My Partner) As a Love Partner Scale(MALPS)

MALPS는 연애 상대로서 서로가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연애 태도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주현덕, 2006). Osgood, Suci와 Tannebaum의(1958) 의미론적 차별법(意味分尺, sematic differentials)을 이용해서 만든 연애태도 척도이며, 9점 척도의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adjective- anchored bipolar rating scales)에 심리적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시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의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Tzeng, 1993). 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및 개방성의 6개 하위요인, 각 4개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애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양호도가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① 다정함 요인은 로맨틱하고, 다정하며, 성격이 원만하고 자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 유사성 요인은 상대가 나와 비슷하고, 수준이 맞으며, 동질적이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③ 집중성 요인은 관계에 열중하며,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허용성은 너그럽고, 포용적이며, 이해심 많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⑤ 유능함의 요인에서는 능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며, ⑥ 개방성 요인은 보다 외향적이고, 진보적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3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각 .80, .78, .71, .64, .69와 .64를 기록했으며, 전체 6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5(N=371)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24개 단어 쌍의 연애태도(연인평가)에 대한 설명변량은 61%이며, 성적 만족도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59%의 설명 변량을 갖는다. 124명을 대상으로 한 3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 요인별로 .67에서 .81로 나타나서 정의적 척도에 요구되는 .70의 기준

1) 혈액형별로 동일한 수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Rogers와 Glendon(2003)의 연구처럼 혈액형별 피험자의 수를 일치시켜서 집단구성원의 크기에 의한 오염을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피험자 모집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수정 권고를 이행할 수 없었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가 혈액형별 집단의 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선례를 따라 전체 인구비율에 따른 혈액형별 집단을 그대로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표 2. 사랑의 유형(5점)과 MALPS(9점)의 혈액형별 분포

	A형 *N*=163	B형 *N*=154	O형 *N*=135	AB형 *N*=45	*F*(3, 495)
에 로 스	3.05(.63)	3.01(.70)	2.96(.66)	3.10(.65)	.835
루 두 스	2.86(.67)	2.93(.71)	2.91(.70)	2.81(.82)	.603
스트로게	2.95(.74)	2.99(.78)	2.96(.78)	2.93(.69)	.017
프래그마	3.15(.82)	3.21(.79)	3.22(.73)	3.10(.78)	.684
마 니 아	2.96(.81)	3.10(.77)	3.04(.73)	3.08(.82)	.880
아 가 페	3.19(.86)	3.10(.76)	3.08(.77)	2.99(.88)	.759
다 정 함	6.18(1.41)	5.97(1.43)	5.88(1.30)	5.78(1.33)	1.511
유 사 성	6.11(1.13)	5.95(1.28)	6.03(1.14)	5.89(1.29)	.930
집 중 성	6.33(1.33)	6.13(1.24)	6.07(1.34)	5.91(1.26)	1.741
허 용 성	6.31(1.30)	6.14(1.37)	6.01(1.41)	5.92(1.45)	1.536
유 능 함	5.88(1.04)	5.84(1.26)	6.01(1.01)	5.80(1.40)	0.653
개 방 성	5.51(1.56)	5.45(1.47)	5.19(1.49)	5.37(1.28)	1.477
성적만족	5.63(1.57)	5.59(1.58)	5.51(1.54)	5.70(1.46)	0.230

$^{***}p<.001$, $^{**}p<.01$, $^{*}p<.05$ ( ) 표준편차

에(Gable & Wolf, 1993) 부합한다(주현덕, 2006).

결 과

이원 분산 분석(factorial ANOVA) 결과, 사랑의 여섯 가지 유형 어디에서도 혈액형별 평균 점수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애태도(연인평가) 척도인 MALPS의 6가지 요인(다정함, 유사성, 집중성, 허용성, 유능함 및 개방성)과 성적 만족에서도 역시 혈액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 어느 혈액형이 더 정열적이라거나(Eros), 친구 같은 관계를 선호하고(Stroge), 연애관계에서 보다 자유분방하다고(Ludus)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떤 혈액형이 보다 더 다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거나 집중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혈액형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표 3. 사랑의 유형(5점)과 MALPS(9점)의 성별 평균, 성별 X혈액형의 상호작용, 연애경험별 평균과 연애경험 X혈액형의 상호작용

	남성 *N*=232	여성 *N*=264	*F*(1, 494)	성별×혈액형 *F*(3, 494)	연애경험 없음 *N*=117	애인 1-2명 *N*=191	애인 3명 이상 *N*=180	*F*(2. 487)	연애경험× 혈액형 *F*(6, 487)
에 로 스	3.14(.66)	2.91(.65)	9.51**	.876	2.98(.62)	2.89(.63)	3.18(.70)	5.700**	1.672
루 두 스	2.89(.72)	2.89(.69)	.130	1.35	2.90(.58)	2.85(.73)	2.94(.76)	1.094	2.664*
스트로게	2.90(.73)	3.02(.78)	.131	3.23*	3.21(.63)	2.93(.76)	2.84(.82)	5.777**	2.381*
프래그마	3.04(.74)	3.32(.80)	15.12***	.650	3.45(.77)	3.11(.76)	3.10(.78)	3.378*	2.156*
마 니 아	3.00(.72)	3.06(.83)	.314	.174	3.27(.70)	2.95(.77)	3.01(.81)	3.908*	1.140
아 가 페	3.42(.77)	2.84(.74)	55.55***	.451	3.11(.76)	3.05(.73)	3.22(.89)	.392	4.344***
다 정 함	6.07(1.44)	5.94(1.33)	.899	.973	5.72(1.38)	5.85(1.23)	6.34(1.49)	7.971***	1.709
유 사 성	5.91(1.26)	6.12(1.13)	2.376	1.03	6.07(1.03)	5.89(1.31)	6.14(1.14)	1.989	.891
집 중 성	6.29(1.35)	6.05(1.25)	1.369	2.05	6.17(1.00)	6.11(1.28)	6.23(1.48)	.141	1.670
허 용 성	6.31(1.45)	5.98(1.27)	7.41**	1.17	6.22(1.70)	6.17(1.27)	6.10(1.54)	.538	.558
유 능 함	6.00(1.15)	5.81(1.12)	.139	3.38*	5.85(1.26)	5.85(.99)	5.99(1.20)	2.928*	2.827**
개 방 성	5.72(1.52)	5.11(1.41)	13.67***	2.41	4.65(1.26)	5.14(1.36)	6.18(1.44)	30.36***	1.115
성적만족	5.64(1.86)	5.55(1.22)	.022	3.15*	5.03(1.01)	5.51(1.63)	6.06(1.67)	11.54***	.581

$^{***}p<.001$, $^{**}p<.01$, $^{*}p<.05$ ( ) 표준편차

혈액형과 성별

혈액형에 의한 집단 간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의한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사랑 유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에로스와, $F(1, 494)=9.51$, $p<.01$, 아가페에서, $F(1, 494)=55.55$, $p<.0001$, 유의미하게 점수가 더 높았고, 프래그마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1, 494)=15.12$, $p<.0001$. 그리고 스트로게에서 성별과 혈액형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F(3, 494)=3.23$, $p<.05$.

연인평가(연애태도) 척도의 하부요인에서는 허용성과, $F(1, 494)=7.41$, $p<.01$, 개방성에서, $F(1, 494)=13.67$, $p<.0001$,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성별과 혈액형의 상호작용이 유능함 요인과, $F(3, 494)=3.38$, $p<.05$, 성적만족에서 나타났다, $F(3, 494)=3.15$, $p<.05$.

혈액형과 연애경험

연애경험에 따라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요인간의 상호작용도 확인되었다(표 3). 연애경험이 많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에로스가 높았다. $F(2, 487)=5.700$, $p<.01$, 하지만 스트로게와, $F(2, 487)=5.777$, $p<.01$. 프래그마에서는, $F(2, 487)=3.378$, $p<.05$, 반대로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다. 스트로게와, $F(6, 487)=2.381$, $p<.05$, 프래그마에서, $F(6, 487)=2.156$, $p<.05$, 혈액형과의 상호작용도 확인되었다. 루두스에서는 연애경험에 의한 집단차이는 없었으나, 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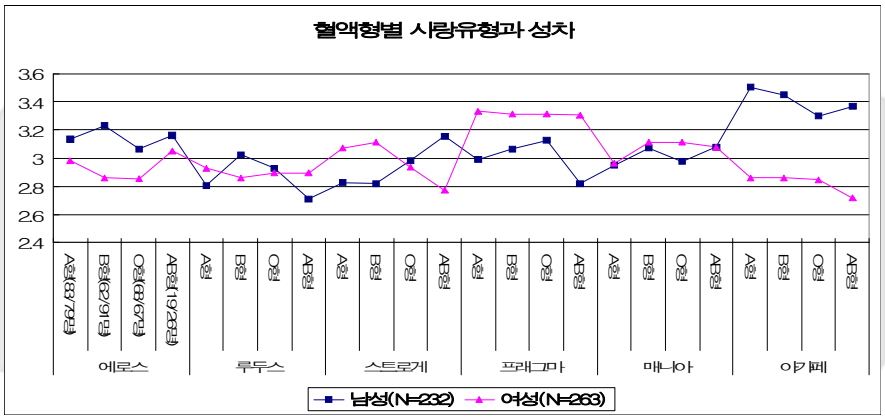

그림 1.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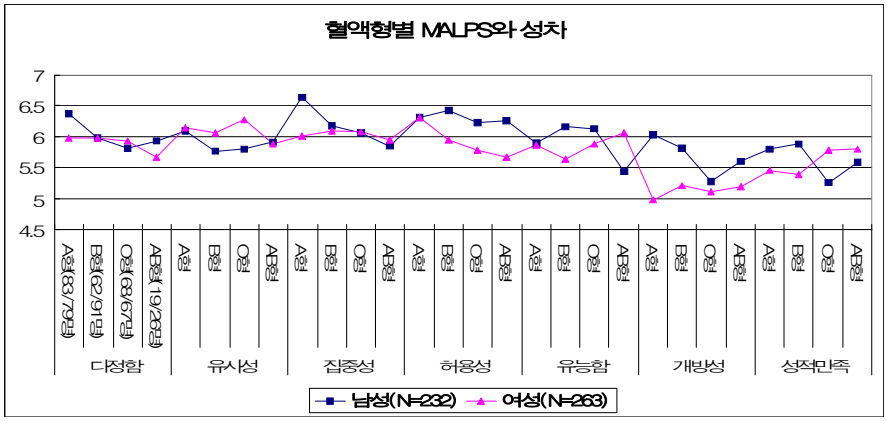

그림 2. 혈액형별 MALPS와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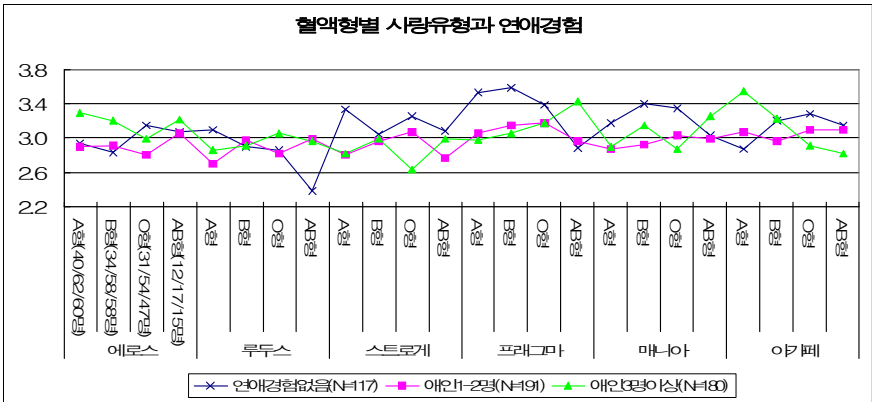

그림 3. 혈액형별 사랑유형과 연애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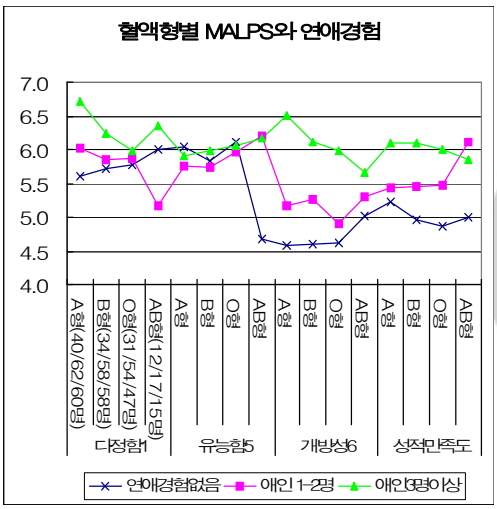

그림 4. 혈액형별 MALPS와 연애경험

액형과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F(6, 487)=2.664$, $p<.05$. 마니아에서는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의 점수가 높지만, $F(2, 487)=3.908$, $p<.05$, 혈액형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아가페는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혈액형과의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F(6, 487)=4.344$, $p<.001$.

연애태도 요인들 중에서는 연애경험이 많을수록 다정함의 점수가 높았으나, $F(2, 487)=7.971$, $p<.0001$, 혈액형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성, 집중성 및 허용성 요인에서는 연애경험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지 않았고, 혈액형과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애경험이 많은 집단이 약간 점수가 높았고, $F(2, 487)=2.928$, $p<.05$, 혈액형과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다, $F(6, 487)=2.827$, $p<.01$. 개방성은 연애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뚜렷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F(2, 487)=30.355$, $p<.0001$, 성적만족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으나, $F(2, 487)=11.542$, $p<.0001$, 상호작용은 의미가 없었다.

논 의

이번 연구 결과, 혈액형별로 사랑유형이나 연애태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떤 혈액형이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더 두드러진 사랑유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연애태도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설명하는 혈액형별 연애특성과 그에 따른 혈액형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성별과 연애경험 같은 다른 변인에 의한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혈액형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지만 혈액형과 연애경험이나 성별의 상호작용의 결과도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혈액형별 연애 유형론의 설명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MALPS의 하위 척도가 혈액형별 성격 유형론의 형용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혈액형별 성격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형용사에서도 혈액형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소현 등(2005)의 연구에서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형용사로 알아본 성격 설명

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람의 성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조소현 등(2005)의 연구에서 B형의 성격으로 거론된 '자유분방하다'는 MALPS의 6요인인 개방성 요인에 해당된다. O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제시된 '원만하다'와 '너그럽다'는 MALPS의 다정함 요인의 '성격이 원만하다'와 허용성 요인의 '너그럽다'와 같다. '활달하다'의 경우도 개방성 요인의 '외향적-내성적'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A형의 성격의 고정관념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MALPS의 집중성 요인은 전반적인 A형의 성격으로 대표되는 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서 그럼에도 혈액형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번 연구는 혈액형 유형 고정관념 형용사가 포함된 척도에서도 혈액형별 연애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한 의의가 있다.

성격의 5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도 혈액형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혈액형 유형론의 변별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어째서 이런 혈액형 유형론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확인적 편파, 바넘 효과, 자기충족적인 예언 및 가용성의 오류가 사람들이 혈액형 유형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심리적 원리를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비롯된 특징의 차이를 보고 사람들이 혈액형별 유형론이나 애정론을 지지하게 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혈액형별 차이로 해석되거나 혈액형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서 그 연관성을 밝혀봐야 할 것이다.

성별에 의한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에서의 차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온 성차는 이번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랑의 유형의 에로스, 프래그마 및 아가페에서 성차가 확인되었다. 남성이 에로스와 아가페에서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대식(1996)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했지만, 여성의 프래그마가 남성보다 높은 점은 달랐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여성이 스트로게, 매니아와 프래그마에서 높고, 남성이 루두스에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Hendrick & Hendrick, 1986; Brehm, 1992), 여성의 프래그마 점수가 높은 점은 일치한다. 이번 연구의 결과만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평가한 반면, 여성은 자신을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LPS의 요인 중에서도 허용성과 개방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주현덕(2006)의 이전 연구에서 개방성에서만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이며, 혈액형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 유형의 스트로게와 연애태도의 유능함 요인과 성적 만족에서 혈액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서 혈액형별 특징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할 때, 성별에 따라 사랑 스타일과 연애 태도가 다소 다르게 보이는데, 그 차이가 혈액형별 차이로 해석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로스에 있어서는 B형에서의 남녀차가 다른 혈액형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t(153)=3.28$, $p<.001$, 이런 차이가 B형 남성의 특징을 부각시켜 B형 남성이 더욱 열정적으로(Eros)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스트로게의 경우, A형과, $t(162)=-2.13$, $p<.05$, B형에서는, $t(153)=-2.34$, $p<.05$, 여성의 점수가 더 높지만 AB형에서는 반대로 남성의 점수가 높은데, 이는 역시 AB형 남자의 친구 같은(Stroge) 성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프래그마처럼 여성의 점수가 일관되게 높거나, 아가페처럼 남성의 점수가 모든 집단에서 높을 경우에는 그것이 성별 변수로만 설명되어지지만, 혈액형별 성별 점수 차이의 양상이 다른 경우에는 성별이 아닌 혈액형으로만 그 차이가 귀인 될 수 있다(그림 1).

연애태도의 경우에도 A형은 MALPS의 집중성과, $t(160)=3.10$, $p<.002$, 개방성의 요인에서, $t(160)=4.55$, $p<.001$, 남성의 점수가 높지만, 유사성이나 허용성, 유능함의 평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 이런 차이의 양상이 A형 남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남녀의 연애태도는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주현덕, 박세니, 2005),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일부 요인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랑유형과 혈액형, 연애태도와 혈액형에서 상호작용이 혈액형별 특성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애경험에 따른 사랑유형과 연애태도

이번 연구를 통해 사랑유형과 연애태도는 연애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연애경험이 많을수록 에로스 점수가 더 높은 반면, 스트로게, 프래그마와 마니아의 점수는 낮았다. 루두스, 스트로게, 프래그마 및 아가페에서 혈액형과 연애경험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은 혈액형별로 연애경험에 의한 사랑유형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비교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밀고 당기는 게임 같은 특징, 친구 같은 특징, 현실적인 면, 그리고 헌신적인 면"과 같은 특성이 연애경험의 증가에 따라 혈액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그림 3), 이 과정에서 연애경험의 역할은 생략되고 혈액형의 차이만으로 그 원인이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애태도에서도 연애경험이 많을수록 다정함과 개방성의 점수가 분명하게 높았고, 유사성에서도 더 높았으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그림 4).

루두스의 경우,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A형과 AB형, $t(50)=4.12$, $p<.001$, B형과 AB형의 차이가 나타나고, $t(44)=2.88$, $p<.01$, 프래그마에서도 B형과 AB형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t(44)=2.73$, $p<.01$, 이런 차이가 AB형 또는 따른 혈액형의 특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아가페의 경우에는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A형의 점수가 O형보다 낮지만, $t(69)=-2.26$, $p<.05$, 애인이 3명이상인 집단에서는 정반대로 A형의 점수가 O형보다 더 높았다, $t(105)=3.583$, $p<.001$. 이런 양상도 A형과 O형의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연애경험은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하지만, 같은 집단 내에서의 혈액형별 차이는 연애경험 3명이상의 아가페의 차이를 제외하면 연애경험이 있는 집단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애경험이 없는 집단이 혈액형별로 차이를 보인 사랑유형과 연애태도의 요인들에 대해서 연애경험이 있는 집단은 혈액형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연애경험의 유무가 혈액형보다 연애태도와 사랑유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혈액형 유형론의 근거가 되는 과정에서 성별이나 다른 개인적 변인의 영향이 무시되면 "B형 남성, A형 여성의 특징"하는 식으로 규정된 성격유형이 오직 혈액형에 의한 특성차로만 인식되어 지기 쉽다.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유사 과학적 유형론 정보가 보통사람들의 판단의 가용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혈액형과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차이를 확인편파와 바넘 효과를 통해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충족 예언으로 활용하여 혈액형별 유형론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과제

피험자의 수는 충분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거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혈액형별로 집단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AB형의 경우 피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집단의 응답 경향이 AB형 성격의 고정관념인 "모순적인 면"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AB형 피험자의 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혈액형이 아니라 연애경험이나 성별 같은 다른 변인이 연애태도와 사랑유형과 더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혈액형 유형론을 사람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보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혈액형이 성별 및 연애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원인이 혈액형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보강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혈액형의 유형론이 제시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다른 설명들, 즉 혈액형별 직업 선택, 경영 전략, 의상 선택, 화장품 선택, 선물 고르기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 과학적 유형학 및 근거 없는 편견과 선입견 등의 의미를 밝혀주는 연구가 계속 되길 희망한다. 옳지도 않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허위 논리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을 심리학은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믿는다. Barnum의 언명이[2]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라도 심리학 역시 계속 그런 상황에 개입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 연구는 단일한 과정을 통해 제한된 결과만을 밝혔지만, 근거도 없는 논리가 대중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자 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정

2) Barnum statement - "바보들은 항상 태어나게 마련이다."

확하며 사람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심리 척도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심리학의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조소현, 서은국, 노연정(2005). 혈액형별 성격특성에 대한 믿음과 실제 성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4), 33-47.

주현덕, 박세니(2005).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 연애관계와 연애태도에서의 성차와 집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0(4), 572-601.

주현덕, 장근영(2006). 한국 대학생의 연인평가와 연애태도 연구 :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1), 39-54.

주현덕(2006). 애정관계에서 "연인으로서의 나(내 애인) 척도(MALPS)"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1(1), 63-81.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2), 81-110.

홍대식(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홍대식(2002). 연애와 결혼의 심리학. 청암미디어.

Aronson, E. (2004). *The Social Animal(9th ed.)*. New York : Worth Publishers.

Berscheid, E., & Walster, E. H. (1969). *Interpersonal Attracti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

Brehm, S. S. (1992). *Intimate relationships(2nd ed.)*. New York : McGrow Hill, Inc.

Burns, G. L., & Farina, A.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lf-perception of mental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61-163.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Buss, 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New York : Basic Books.

Byrne, D., Clore, G. L., & Smeaton, G. (1986). The attraction hypothesis : Do similar attitude affect any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67-1170.

Cramer, K. M., & Imaike, E. (2002). Personality, blood type, and the five-factor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621-626.

Costa, P. T.,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653-665.

De Angelis, B. (1992). *Are You The One For Me?* New York : Dell Publishing.

Eysenck, H. J. (1987). Arousal and personality : Origins of a theory. In J. Strelau, & H. J. Eysenck(Eds.), *Personality dimensions and arousal*(pp.1-13). New york : Plemum.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 in mate selecting preferences :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Hendrick, C., Hendrick,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 (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297-307.

Hjelle, L. A., & Ziegler, D. J. (1981). *Personality theories : Basic assumptions,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 MA : McGraw-Hill Book Company. 성격심리학(이훈구 역, 2002). 법문사.

Kalick, S. M. (1987).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status qu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469-489.

Kurdek, L. A. (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 A

5 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21-242.

Lee, J. A. (1988). Love-styles. In Sternberg, R. J. & Barnes, M. L.(Eds.), The *Psychology of Love*(pp. 38-67).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Lykken, D. T., & Tellegan, A. (1993). Is human mating adventitious or the result of lawful choice? A twin study of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56-68.

Osgood, C. E., Suci, G. J.m & Tannenbaum, P. H. (1958).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na, Il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ickett, C. L., Bonner, B. L., & Coleman, J. M. (2002). Motivated self-stereotyping : Heightened assimilation and differentiation needs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43-562.

Pines, A. M. (1998).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5*, 147-157.

Pines, A. M. (1999). *Falling in love*. New York : Routledge.

Plomin, R., & Caspi, A. (1999). Behavioral genetics and personality. In L. A. Pervin, & O. P. Johnso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Guilford Press.

Rogers, M., & Glendon, I. (2003). Blood type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099-1112.

Schachner, D. A., & Shaver, P. R. (2004). Attachment dimensions and sexual motives. *Personal Relationships, 11*, 179-195.

Setterlund, M. B., & Niedenthal, P. M. (1993). "Who am I? Why am I here?" : Self-esteem, self-clarity, and prototype matc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769-780.

Sedikides, C., Oliver, M. B., & Campbell, W. K. (1994).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romantic relationships for women and men : Implications for exchange theory. *Personal Relationships, 1*, 5-21.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Snell, Jr., W. E., & Papini, D. R. (1989). The sexuality scale : An instrument to measure sexual-esteem, sexual-depression, and sexual-preoccupat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6*, 256-263.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Sternberg, R. J. (1998). *Love is a St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Sternberg, R. J., & Barnes, M. L. (1988).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Tversky, A., & Kahnenman, D.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s and biases. In D. Kahneman, P. Slovic, & A. Tversky(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 Heuristics and biases*(pp.3-2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zeng, O. C. S. (1993). *Measurement of Love and Intimate Relations : Theories, Scales, and Applications for Love Development, Maintenance, and Dissolution*. Praeger Publishers, CT.

White, M. J., Brockett, D. R., & Overstreet, B. G. (1993). Confirmity bias in evaluating personality test information : Am I really that kind of pers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120-126.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6, Vol. 20, No. 3, 67~80

Does Love Depend on Blood Types? : Blood Types, Love Styles, and Love Attitudes

Hyun-Duk Joo **Se-Nny Park**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measure the relationship between blood types(A, B, O, AB) and love styles, and the association between blood types and love attitudes. Lee's "Love Style Scale" developed by Hendrick & Hendrick(1986), and Me as a Love Partner Scale(MALPS), which measures love partners' attitudes, were administered to 496 subjects. Consistent with past researches related to the association between blood types and personality(Big 5), no meaningful relationship emerged between love styles and blood types, nor between love attitudes and blood types as well. Pseudo-scientific personality typology based on blood types was proved to be invalid to account for the differences among people's love styles or love attitudes. But gender and experience of love relationships can moderate the differences in love attitudes and love styles among blood types. And the possible reasons why people hold the beliefs about the association blood types and personal traits were discussed.

Key words : Blood types, love styles, love attitudes, MALPS, personality typology

원고접수 : 2006년 7월 25일
심사통과 : 2006년 8월 16일